

“사는 곳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다수...도심·여성·40대 ↑

행안부,尹정부 출범 후 첫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종합 56.9점 그쳐...미취학 자녀 둔 가구 더 불안 대형사고 잦은 광주 > 인천 > 서울 順 불안도 높아

도시에 살고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일수록 체감 안전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사고보다는 미세먼지나 화재·폭발과 같이 자주 경험해왔던 재난·사고 유형일수록 불안감은 더 컸다.

7일 행정안전부가 여론 조사업체 알앤알 컨설팅에 의뢰한 '2023년 재난관리평가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3월 2~9일 8일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79%포인트다.

이 조사는 행안부가 주도해 매년 이뤄지며 윤석열정부 출범 후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특히 올해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지

수 중심의 예년 조사와 달리 국민이 느끼고 인지하는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전면 수정됐다.

재난안전 체감도와 재난관리 수행역량을 합산한 종합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56.9점에 그쳤다. 이 숫자는 낮을수록 불안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안전도와 지난해 밀접하게 경험한 재난·사고를 토대로 산출한 재난안전 체감도가 61.8점이었다. 사는 곳의 재난관리 수행 역량을 점수화한 재난관리 수행역량은 이보다 더 낮은 55.7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지에 거주하는 국민이 느끼는 안전도가 56.5점으로 가장 낮

았다. 반면 해안가(58.0점), 농경지(58.8점), 산지(60.3점)는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17개 시·도별로는 지난해 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가 잦던 광주(53.6점) 지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물류창고 등 대형 화재가 잇따랐던 인천(54.8점)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진 서울(55.8점)의 안전도도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세종(61.8점) 지역의 종합체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뒤이어 경남(58.9점), 충남·제주(각 58.6점), 강원(58.0점), 전남(57.7점), 경북(57.6점), 부산(57.5점), 충북(57.3점), 울산(57.0점), 경기(56.7점), 대구(56.5점), 대전·전북(각 56.1점)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6.0점)이 남성(57.0점)보다 거주 지역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53.1점)가 거주 지역의 안전도를 가장 낮게 봤다. 뒤이어 50대(55.9점), 60대(56.4점), 30대(57.3점), 70대 이상(58.5점), 20대(61.3점) 순이었다.

가족 유형별로는 자녀를 둔 가구(56.6점)

가 체감하는 안전도가 가장 낮았다. '1인 가구'(57.3점)와 '부부(2인) 가구'(57.5점)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했다.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55.6점)가 '미취학 자녀 없음(56.8점)'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재난·사고 유형별로는 '미세먼지'(42.6점)에 대한 안전도가 가장 낮았다. 폭염·감염병(각 57.4점), 화재·폭발(60.4점), 산불(61.8점), 가뭄(62.0점) 등 발생 빈도가 잦은 재난·사고 유형일수록 불안감은 컸다.

반대로 원전사고(69.7점)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중밀집사고(67.7점), 풍수해(67.1점), 화학물질 누출사고(66.5점), 붕괴사고(64.7점), 지진·산업재해(각 63.5점) 등에 대한 걱정도 적은 편이었다.

거주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끼는 이유로는 전체의 31.8%가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서'라고 지목해 가장 많았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족'은 27.2%, '지자체의 관리 소홀'은 16.1%, '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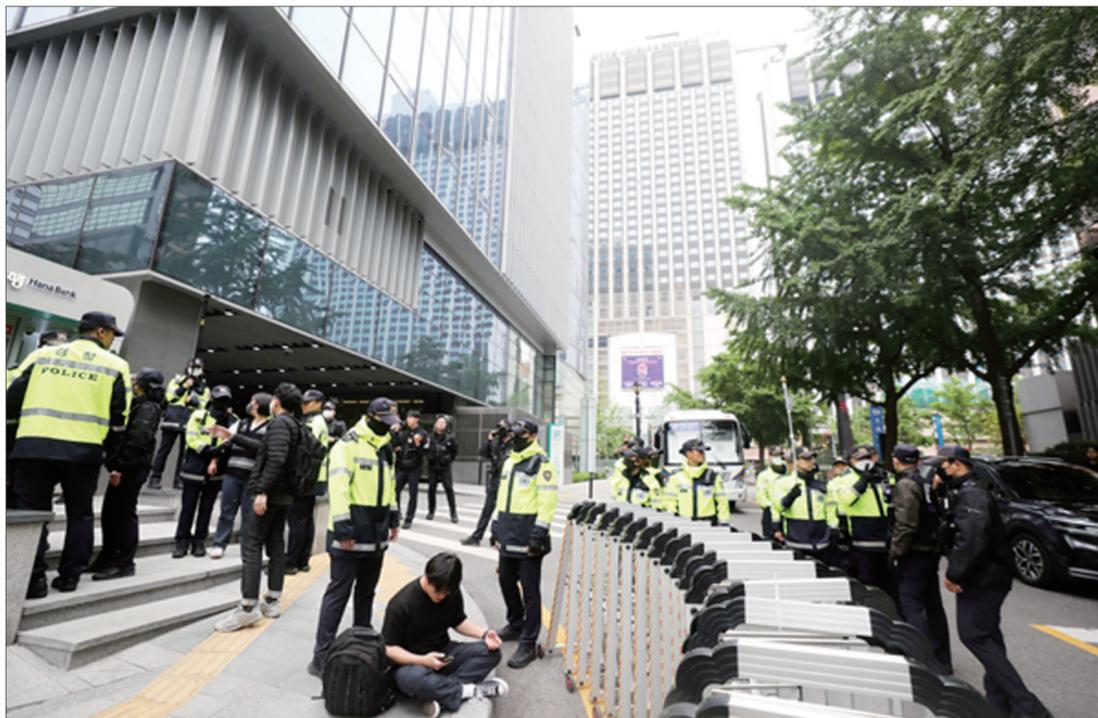
발생 시 피해 지원 부족'은 4.9%로 각각 나왔다.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몰라서'라며 자신의 문제로 바라본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재난관리 정책 인지도(복수응답) 중에서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이 74.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더위쉼터(53.9%), 재난안전 훈련(42.9%), 풍수해보험(32.4%), 무료 심리지원서비스(38.9%), 임시주거시설 위치(22.8%) 등의 순이었다.

재난관리 수행 역량으로는 '신속한 상황전파'(62.3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58.5점)과 '재난안전 정책 홍보'(57.1점)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 체감도와 재난관리 수행역량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주민 재난 유형 파악과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난대비훈련 확대와 정책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 의식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결론 냈다. 최이슬기자



경찰에 가로막힌 한일정상회담 규탄 시위

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7일 서울 소재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숙박 호텔 인근에서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또 '우울증갤러리'...10대 2명 극단 선택 미수

어린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5일) 오전 3시55분께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여자 두 명이 난간 밖으로 넘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여학생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우울

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현장에는 이들 외에 성인 남성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말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형사, 여성(여성청소년), 사이버 등 자살예방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우울증갤러리에 제기된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재환기자

'음주운전 신고' 출동 경찰차량까지 들이받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시설물과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양동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경찰차량을 받은 혐의다.

또 앞서 A씨는 광산구 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